

전국 건설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 5월 15일부터 2,053개 건설현장 대상 11개 안전점검반 총 842명 투입
- 국토부·지자체 안전관리대책 회의 및 자체점검 계획 수립 등 협력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5일부터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토사유실, 붕괴취약 구간 관리현황과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가시설(동바리·일체형 발판)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5개 지방국토관리청)와 산하기관으로 안전점검반(총 11개반 842명)을 구성하였으며, 점검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여 우기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위험현장은 사전에 확인하여 우기 건설사고 예방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5월 4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윤우 (044-201-3573)
		담당자	사무관	안일찬 (044-201-3552) 이정훈 (044-201-4593)

□ **점검목적**

- 우기철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전국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경각심 고취,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견실시공 유도

□ **점검기간 및 대상**

- (기간) '23. 5. 15. ~ 7. 7. (39일간, 공휴일 제외)
- (대상) 2,053개 건설현장(우기대비 1,984개, 특별점검 69개)

점검기관 \ 점검대상	계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수자원	택지	기타
계	2,053	170	157	32	1,463	67	110	54
국 토 부	505	55	5	1	342	67	3	32
산하기관	1,548	115	152	31	1121	0	107	22

- * (선정기준) ①우기 취약공종(대규모 절개지 현장, 지하굴착 현장 등) 포함 현장, ②'23년 1분기 사망사고 건설사 건설현장

* 건축물 1,463개소, 도로 170개소, 철도 157개소, 수자원 67개소, 공항 32개소, 택지 110, 기타 54개소

□ **점검단 구성** : 기술안전정책관(총괄), 총 11개반 842명

- 국토부 본부 15명, 지방국토관리청 5개반 146명, 산하기관 6개반 681명

□ **중점 점검사항**

- 우기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의 설치 적정성 여부
-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시공사 반입검사 직접수행 여부
- 주변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여부